

2011년 경제전망과 크리스천의 자세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한 해도 유럽발 경제위기를, 중국의 긴축,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나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6%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해, 다시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주가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또한 수출규모는 세계 7위로 부상했다. 게다가 주요20개국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인 한 해였다. 2011년 새해에도 지난해의 건실한 성장을 기초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새해의 경제를 전망해 보고,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2011년 새해의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 국내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겠다.

먼저, 국외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복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기업이익이 호전됨에 따라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교역량이 25%에 달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임금이 크게 상승되고 중국 정부가 소비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에 기반을 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주요 예측기관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1년에는 4%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유로지역 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즉 달러 살포를 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원유, 식량,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 유가의 오름세를 새해에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국내 여건의 경우 작년의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 구매력은 상당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가와 부동산 가격 전망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의 경우 작년에 2,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새해에는 2,400 포인트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전년도에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매매도 크게 증가하여서 새해에는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가계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LCD 등 주력 업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가동률이 높아져서 기업투자 여건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주택건설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간부문 주택건설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공공부문에서는 작년의 인허가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 절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수출을 견인할 부문은 IT산업으로 신형시장의 IT제품 수요 증대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IT 분야에서 수출이 10% 가량 증가하면서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러한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 해 6.1%보다는 다소 낮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수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26만명 증가해 실업률은 작년의 3.8%보다 다소 낮아져, 3.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소비

자 물가의 경우 3.5%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경상수지의 경우 작년의 290억달러에서 올해에는 180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새해의 경제전망은 이러한 것들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에 따라서 경제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임금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동향이 주목됩니다.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급여 등 노사갈등의 새 불씨가 남아 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동향 또한 새해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12.1% 상승하여 10년만에 최고치인 128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남북갈등이 새해 경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경제란 기본적으로 앞날에 대한 예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금협상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이자율도 마찬가지이다. 투자결정도 경제전망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해마다 정부와 각 경제연구소에서는 새해에 대한 예측을 하지만, 그것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경험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매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 없이 인간의 지혜에만 의지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게을리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성장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복한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다.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